

# 자비+나눔=웃음과 행복

## 바자회 쏠쏠하다 입소문 지역주민·장원봉사자들로 북적

### 행복법당 탐방 옥수종합복지관

“모두 다 새 물건이에요~. 애기들 내복이 3000원이예요~.”

“매장에서 파는 것들이예요! 정말 싸니까~.”

기습적인 가을 한파가 몰아친 10월 28일 오전 9시, 서울 왕십리 소월아트홀에 개장한 옥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상덕) 바자회 현장이 뜨겁다. 그동안 옥수복지관의 바자회가 쏠쏠한 것으로 입소문을 타 지역주민들이 갑자기 몰렸기 때문이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장터. 밝은 연두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덩달아 바빠졌다. 먹거리마당에서 떡볶이를 만들고 국수를 마느라 바쁜 사람, 물건을 팔고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 모두 정신이 없다.

이들은 옥수복지관 개관 때부터 함께 웃어온 정수암 신도들과 적십자봉사회 회원들이다. 1998년 3월 복지관이 개관한 이후 활동해 온 이들의 봉사경력에 대부분 5년을 훌쩍 넘겼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만 도우미를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 반짝바자회, 겨울철 김장 담그기 행사를 비롯해 주 1~2회 각자 형편이 닿는 대로 복지관 식당에서 도시락을 만들고 독거어르신 가정을 찾아다니며 반찬 배달을 한다.

고통을 겪어 본 사람은 남이 겪는 아픔의 깊이도 헤아릴 줄 안. 고통은 나누면 반이



“애고! 애기 때는 따뜻하게만 입히면 돼!” 옥수복지관장 상덕 스님이 아이 옷을 고르는 한 주부에게 옷을 추천하고 있다.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 사실도 겪어 본 사람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안다. 옥수복지관에서 진행되는 행사에서 이들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바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알고 봉사하기 때문이다.

1주일에 4~5차례 복지관에 나와 주로 무의탁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돕는다는 조기

례씨(56, 옥수적십자봉사회 회장)는 “기분이 좋아야 자주 나오죠”라고 딱 부러지게 말했다. 조씨는 “봉사는 마을에서 우리나라 한다. 매년 어르신들을 도우며 나 스스로 기분이 좋아야 자주 나온다. 나도 머지않아 노인이 될 텐데 서로 도와가며 산다고 생각하면 흐뭇하다”고 말했다.

박선희 자원봉사자(48)도 “관장 스님이 직접 챙기시는 모습을 보며 배우는 것이 많다. 항상 오가며 힘든 어르신들을 많이 봐왔다. 남일 같지 않아 지역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행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나왔다”며 밝게 웃었다.

옥수복지관은 1998년, 당시 달동네로 유명한 옥수동 산자락에 건립됐다. 성동구청이 건립하고 미타사 정수암이 위탁해 운영해왔다. 그동안 옥수복지관에서는 노인대학, 재가복지봉사센터 등의 50여 강좌가 다양하게 진행됐다. 방과 후 교실, 어린이전지, 노인잔치, 바자회, 여름방학 특강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맞춤 서비스는 계속 이어졌다.

옥수복지관이 낱다른 성과를 이뤄내기가 지는 힘든 과정이 있었다. 80% 이상의 국비지원이 나오는 장애인·노인 복지관과 달리 전체 운영비 중 40%만을 국비 지원을

받고, 20%를 실비 운영에 따른 창출금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40%는 재단 전입금 및 후원금) 최근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운영지침이 바뀌어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수복지관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나눔의 정신을 펴기 위해 오늘도 정진한다. 김연수 사회복지사는 “예전에는 남는 재고 물품 등을 협조 받았는데 경제난으로 최근에는 물품을 협조 받기 힘들어졌다. 집안에서 쓰지 않는 물건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내놓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상덕 스님은 “어려운 사정에 직원들이 고생이 많다. 이번 바자회를 위해서 복지관 직원들이 두 달 동안 동대문, 남대문 시장을 뛰어다니며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며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 스님은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손길로 힘든 이웃들의 얼굴에서 웃음과 행복을 볼 때 보람을 느낀다”며 더욱 활발한 활동을 다짐했다.

정오를 넘긴 시간, 어린 딸을 데리고 나온 한 주부가 구매를 고민하다 실금판과 독거어르신을 위한 행사라는 자원봉사자의 설명에 선뜻 지갑을 열었다. 노덕현 기자



지역 주민들은 바자회에서 어려운 이웃도 도울 수 있고 좋은 물건도 살 수 있어 좋다며 즐거워했다.

### 불교상담개발원과 함께 하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Q** 저는 가정주부로 최근 자원 봉사 교육을 받고 어느 단체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니 좋은 사람도 많이 사귀었지만, 미운 사람들도 더러 있어 마음이 괴롭습니다.

어느 한 분은 말마다 좋은 말을 많이 합니다. 불자라며 부처님 말씀을 예를 들어 그럴싸하게 맛있는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남들에게 그렇게 살고 하면서 자신은 전혀 그 말을 실천하지 않는 것 같아 화가 납니다. 특히 사람들을 이간질해 서로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뒤에서 남 흉을 보고, 앞에서 아닌 척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겉과 속이 저렇게 다를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불자에게 불교를 정말 좋아하지만, 그 사람을 보면 불교를 믿지 말아야겠다는

**Q** 불교 경전은 석가모니불이 설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대승경전에 많이 등장하는 아미타불도 석가모니불께서 설하셨는지요. 석가모니불과 아미타불과의 관계와 대자대비보살님과의 관계도 궁금합니다.

**A** 경전은 여타의 책들과는 달리, 진리를 설한 것을 말합니다. 석가모니불께서는 진리(다르마)를 깨닫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설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제자들이 받아 엮어 놓은 것이 경전입니다.

불(佛)은 범어로 ‘깨달은 자(覺者, Bodhi)’라는 뜻이며, 보살(菩薩)은 범어로 ‘Bodhi+sattva(깨달은 자+중생)’로, 불교가 중국으로 전파되면서 한자로 음역해 보리살타(菩提薩他) 즉

### 사람이 싫어져서 봉사활동 나가기 싫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들때마다 자신을 살피세요

생각까지 듭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의 본성을 모르고, 그 사람이 불교 이야기를 하면 불교가 좋아졌지만, 그 사람의 그릇된 행동을 볼 때에는 종교가 다 무슨 소용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너무 싫어 봉사활동에도 나가기 싫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A** 대승과 소승은 설하신 부처님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 100년 후 부파불교 시에 크게 남방불교 북방불교로 나뉘게 됐는데, 북방불교는 대승이고 남방불교는 소승이라 합니다. 대체로 동남아 지역은 남방불교이고 한국, 중국, 일본 등은 북방불교입니다.

소승은 자신의 성불에 먼저 집중하는 것이고, 대승은 자리아타 즉 나도 성불하고 너도 함께 성불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삼신(三身)으로 구분합니다. 삼신에는 법신(法身), 보신(報身), 화신(化身) 또는 응신(應身)이 있습니다. 법신은 법은 영겁토록 변치 않는 만유의 본체(비로자나불)이며, 보신은 인(因)에 따라 나타나는 불신(아미타불)을 말합니다. 화신 또는 응신은 중생의 원에 따라 화해 나타는 불신, 여러 보살님(석가모니불)을 말합니다.

보살이라 부릅니다. 우리 인간은 각자와 중생이 한 몸입니다. 다투면 각자요, 그렇지 않으면 중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여성 불자를 보살이라 부르는 것은 존칭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면 고타마 시타르타가 정각을 이룬 후에 불린 이름인 석가모니불입니다. 마치 우리가 ‘김 대리’ ‘누구의 아빠’ ‘할아버지’ ‘아저씨’ 등으로 불리듯 부처님도 그 역할에 따라 여러 이름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미타불, 비로자나불, 약사불 등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보통 삼신(三身)으로 호명하는데, 인간의 몸으로 살다가 열반하신 화신(化身)불, 열반에 드신 후에 중생계의 구제를 위해 그 가르침으로 나투신 법신(法身)불, 붓다가 보살수행을 완성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결과로 얻은 보신(報身)불입니다. 또 치유 능력을 강조해 약사불을 모시기도 합니다.

절에 가면 부처님 좌우에, 그를 협시보좌하는 보살들이 계십니다.

24시간 자비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i24.org  
청소년사이버 상담팀 아하엑스 www.ahse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단법인 자비전화)

## 감사의 말씀

지난 10월 26일 군산 월명산 동국사 창건 100주년 기념법회에 수행과 가람수호에 바쁘신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신 대덕 스님들과 불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도리이나 우선 지면을 통해 인사드림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동국사 대중들과 신도들은 가람수호와 수행 포교에 더 한층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불기 2554년 10월

대한불교조계종 24교구

군산 월명산 동국사 주지 중명  
신도 일동



전북 군산시 금광동 135-1번지 063)462-5366 / http://www.dongguksa.or.kr

##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보건식품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육과목	교육기간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 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 교육생 상시 모집

중앙교육원 - 홈페이지 [www.klle.or.kr](http://www.klle.or.kr)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의 : Tel. 02)3147-2020

### 지부교육원

영남교육원 055-543-3155	울산교육원 052-260-1037	지리산연수원 063-635-5112
대구교육원 053-566-1116	호남교육원 063-288-5623	경남서부교육원 055-932-5877
부산교육원 051-441-0111	전북익산교육원 063-854-1060	제주교육원 064-755-7588
해운대교육원 051-757-9990	광주교육원 062-672-5432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